

파퀴아오 1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복귀전

美 프로모터 “링 오르기 위해 휴가 얻어” 밝혀

‘매니 파퀴아오는 아직 밤 일을 끝낼 준비가 안된것같다.(Manny Pacquiao isn't ready to give up his night job just yet.)’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발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첫머리로 지난 4월 은퇴경기를 갖고 링에서 떠났던 필리핀 복싱 영웅 파퀴아오(38)가 복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유명 프로모터 보브 애덤은 이날 “현재 필리핀 상원의원인 파퀴아오가 다시 링에 오르기 위해 휴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진 날짜는 11월 5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가 유력하다.

파퀴아오의 링 복귀에 대해 애덤은 “그는 싸움과 눈길갈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퀴아오는 지난 4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티모시 브래들리(33·미국)와의 국제복싱기구(WBO) 인터내셔널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그는 이 경기를 끝으로 글러브를 벗었다. 통산 전적은 58승2무6패 38KO였다.

파퀴아오는 은퇴경기 후 다음 달 실시된 필리핀 총선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하원으로도 활동해왔던 그는 상원이 된 후 직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링에 오르는 것을 망설여왔다.

애덤은 “필리핀 상원의원이 예상외로 확정되는 10월 15일 이후에는 파퀴아오가 링에 올라가도 된다고 승인해 이번 대진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파퀴아오는 필리핀에서 훈련을 하다가 10월 16일 미국에 온다. 2주간 미국에서 훈련을 한 뒤 라스베이거스에 입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달레이 베이 아레나에서 10월 15일 경기를 하는 계획도 세웠지만 파퀴아오가 그렇게 일찍 필리핀을 떠날 수 없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GM 리조트가 어려울 경우 UNLV 캠퍼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파퀴아오의 복귀전 상대로는 4체급을 석권한 에드러인 브로너(27·미국)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애덤은 브로너가 대진료를 파퀴아오만큼 높게 불러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신 WBO 웰터급 타이틀을 보유한 제시 바르가스(27·미국)가 유력한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근기자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38)가 복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4월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에서 열린 티모시 브래들리(33·미국)와의 국제복싱기구(WBO) 인터내셔널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자신의 은퇴경기에서 3-0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둔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는 모습.

MLB 김현수, 볼티모어 전반기 ‘최고 신인’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전반기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신인으로 꼽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2일(한국시간) 올 시즌 볼티모어의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전반기 최우수선수(MVP)와 최고 투수, 최고 신인 등을 선정했다.

ESPN은 올 시즌 전반기 최고 신인으로 김현수를 꼽았다. ESPN은 “4월초 김현수는 마이너리그로 보내질 위기에 놓였다. 그 때 김현수가 볼티모어의 전반기 최고 신인으로 꼽힐 확률은 대형 국제 축구대회에서 아이슬란드가 잉글랜드를 이길 확률과 비슷해 보였다고 전했다.”

시범경기 17경기에서 타율 0.178(45타수 8안타) 2타점에 그친 김현수는 구단과 박 쇼월터 감독의 마이너리그행 권유를 거부했다가 홈 개막전에서 팬들의 아유를 받았다. 이 여파로 시즌 초반 기회도 잡지 못했지만 적은 기회를 살려내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ESPN은 “3개월 뒤 김현수는 쇼월터 감독의 감탄사에 자리잡았다”며 “5월말 주전급 선수로 자리잡은 김현수는 170타석 이상을 소화한 아메리칸리그 타자 중 타율 5위(0.329), 출루율 6위(0.41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수는 2004년 라파엘 팔메이로 이후 삼진보다 볼넷이 많은 첫 볼티모어 주전 타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마지막 화·수·목요일, 프로야구·축구 50% 할인

프로스포츠계가 7월 매달 마지막 화·수·목요일에 입장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제공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스포츠계는 지난해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만 어린이 동반 가족에 한해 입장권 가격을 50% 할인하던 것을 올해 5월부터 화·수·목요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중들은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프로야구 롯데-엘지(잠실야구장), 두산-넥센(고척스카이돔), 에스케이(SK)-한화(대전 한화생명야구경기장), 엔씨(NC)-삼성(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케이티(KT)-기아(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의 외야석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는 오는 27일 서울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이랜드와 대구 경기를 비롯해 경남-충주(창원축구센터), 고양-부산(고양종합운동장), 부천-안산(부천종합운동장), 안양-대전(안양종합운동장) 경기의 일반석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kt 위즈 선수단 관리 허점...사고뭉치 구단 전략

김상현 음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지난해에는 장성우 SNS 사건 등 발생

베테랑 김상현(36)까지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 입건되면서 KBO리그 막내 구단인 kt 위즈가 ‘사고뭉치 구단’으로 전략했다.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께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서 길을 지나던 여대생 B(20)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 4일 불구속 입건됐다. 김상현은 B씨 옆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김상현의 입건 소식이 세간에 알려졌고 kt는 하루 뒤인 13일 오전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상현을 임의 탈퇴 처분하기로 했다.

1군 무대 진입 2년째인 kt가 추문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 kt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작년 10월 포수 장성우가 전 여자친구와 나눈 내용이 SNS를 통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공개된 내용은 야구 관계

자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문제가 됐다.

장성우는 이로 인해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24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구단으로부터 50경기 출전정지와 연봉 동결, 벌금 등의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투수 장시환(29)도 전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글 탓에 논란을 불러일으켜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올 3월에는 오정복이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KBO는 오정복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제재를 내렸다.

kt는 이미 ‘장성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훼손하면 ‘원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천

명했지만, 계속해서 선수단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원아웃 제도’를 내세우며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한 kt 구단이 이후 실제로 보여준 대처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오정복의 음주 운전 때 kt가 오정복에게 내린 구단 자체 징계는 10경기 출장정지 및 벌금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 KBO는 오정복에게 15경기 출전정지와 120시간 봉사활동 제재를 내렸다.

kt는 지난 12일 오후 4시 김상현의 입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열리기 약 두 시간 전이다. 그러나 김상현의 이름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제출하는 선발 라인업에 올라 있었다.

보도가 나온 뒤에도 김상현은 계속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었다. 실명이 거론된 뒤인 4회초 수비 때가 되어서야 김상현은 김연훈으로 교체됐다.

kt 구단은 김상현에게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또다시 선수단 관리에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께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서 길을 지나던 여대생 B(20)씨를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 4일 불구속 입건됐다.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김민근기자

익산 롯데리아 페스티벌 전국대회 16일 개최

제3회 롯데리아 페스티벌 전국대회가 오는 7월 16일 익산야구장과 리틀야구장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10개팀과 초청 2개팀 등 12개팀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주)롯데리아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티볼연맹이 주관하며,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유소년 야구발전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티볼은 야구의 흥미와 재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야구형 스포츠로 청소년에게 인기가 아주 높다.

또 이벤트행사로 전국기예포 감독이 임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고 교사와 학생이 한조로 학교별 1팀이 출전하여 벌이는 홈런왕 레이스와 남학생들이 벌이는 구수왕 선발대회를 개최해 우승자에게는 선물을 증정한다.

/익산=정양원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